

제8회 세계헌법학계 참관기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

(2010. 12. 5.~10.)



성 낙 인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전 세계헌법학자의 집합체인 세계헌법학회(프랑스어로는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droit constitutionnel(약자 AIDC), 영어로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약자는 IACL)를 1980년대에 유럽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4년마다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회 대회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로서는 아직 동구권이 미수교 상태인지라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제2회 대회는 1987년에 프랑스의 파리에서 이틀을 하고 다시 엑스-엔-프로방스에서 개최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 몇 백명 정도의 헌법학자와 헌법재판관 등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세계헌법학회는 창립 이래 이미 성년을 지난지라 1천명이 넘는 헌법학자가 전 세계에서 운집하였다.

제8회 멕시코대회의 주제는 헌법과 원리(Constitution and Principles)이다. 대회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었다. 5일에는 참석자를 위한 전야제가 멕시코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6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주로 오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멕시코의 유서 깊은 컨벤션 센터의 중앙 홀에서 진행되었다. 전체회의의 주제로는 1. ‘헌법원리에 관한 법철학적 조망’, 2. ‘헌법과 세대 그리고 원리’, 3. ‘원리: 보편성과 특수성’, 4. ‘헌법원리와 재판관’이었다. 특히 그간 헌법학자 중심의 세계헌법학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관들이 패널로 참석함으로써 헌법학이론과 헌법재판의 조화를 도모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다음에 기회에는 꼭 참여하여 학자와 실무가의 세계적 공론장에 함께하길 바란다.

나머지 시간에는 각 분야별로 워크 샵이 진행되었는데 각 세미나 장에 각자의 관심 분야에 참석하는 형태인데 헌법과 관련된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논의가 헌법원리의 차원에서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그 개별적 주제로는 선거제도와 헌법원리, 구 권위적 헌법과 신 민주제도, 미디어와 헌법원리, 분화된 사회와 헌법원리, 국가 내 헌법들, 테러와 법의 지배, 다문화와 인권, 연방주의가 헌법원리인가? 원리로서의 비례성, 인권의 불가분성, 종교와 국가, 외국법, 헌법학자들의 유럽네트워크-중부유럽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가치, 헌법학 잡지, 인간존엄성, 라틴아메리카 헌법의 새 경향, 권력분립원리의 재검토, 헌법원리에 미친 국제법의 영향, 헌법원리와 민주적 이행, 비교헌법론, 지역연계와 헌법적 함의와 같은 주제가 설정되었다.

수요일에는 세계헌법학회에 각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의 카운슬 미팅(Council Meeting)이 진행되었다. 이는 사실상 세계헌법학회 임원총회나 마찬가지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회의이다. 카운슬 미팅에서 세계헌법학회의 중요현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카운슬 미팅에 한국에서는 조병윤 교수(명지대)와 성낙인 교수(서울대)가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차기 제9회 대회는 4년 후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디디에 모스(Didier MAus) 회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수석부회장인 핀란드의 마르틴 쉐이닌(Martin Scheinin)이 관례에 따라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간 한국에서는 제2회 파리대회에서부터 김철수 교수님을 모시고 조병윤 교수, 성낙인 교수, 정재황 교수가 참여한 이래 많은 헌법학자들이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 왔다. 특히 김철수 교수님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세계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조병윤(명지대) 교수, 성낙인 교수, 이우영(서울대) 교수, 박인수(영남대) 교수가 서울에서 찾아갔고, 스탠포드에 연수중인 허성욱(서울대) 교수, 텍사스에 연수중인 홍완식(건국대) 교수도 참여하였다. 이번 대회부터 법원에서든 대법원 헌법연구회에 소속된 법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전광식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도진기, 고일광, 노태현, 이재홍 판사가 참여하였다.

세계헌법학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정기학술대회 이외에도 소규모의 포럼이 진행된다. 그간 일본에서는 ‘요코하마 라운드’를 개최한 바 있고, 한국에서도 2008년에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회장 조병윤) 주최로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일본은 이미 1991년에 도쿄에서 제3회 세계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다. 이 때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라 김철수 교수님을 모시고 30명에 이르는 한국헌법학자들이 참여하여 주최국인 일본 다음으로 많은 헌법학자들이 참여한 바 있다.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세계대회가 개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민주헌정을 일구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소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세계헌법학회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입장이다. 또한 그간 적박했던 헌법학계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기에 더욱 세계헌법학회 개최의 열망이 고조된다. 이를 통해 한국 민주헌정의 발달상과 한국헌법학계의 수준을 더욱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한다.